

5. 기업분석 (1)

HK이노엔(195940)

매출 다각화, 국내 비만 치료제 출시 2등 유망

전문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제조·생산 기업

동사는 '14년 4월, 씨제이제일제당의 제약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1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다. 동사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의약품(ETC)사업과 음료수 및 다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H&B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중이다. '24년 기준 매출은 전문 의약품 사업 89.7%, H&B 사업 10.3%로 구성되어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한국콜마(주)가 최대주주로서 43.0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국내 비만 치료제 리딩을 점하는 HK이노엔의 IN-B00009

동사는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선두주자로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비만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 P-CAB의 제제인 케이캡의 매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함이다. 동사는 지난해('24년) 중국 바이오 기업 사이윈드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도입한 물질 IN-B00009의 국내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확보하며 비만 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 중에 있다. 지난 5월 8일, 국내 식약처로부터 IN-B00009의 임상 3상 계획을 승인 받으며, 우선적으로는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 및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N-B00009는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중국 등에서 임상이 순항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임상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한미약품 다음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을 리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국내에 출시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4주 분량이 37만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출하가가 책정되며,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3년 기준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1,780억원으로 글로벌 비만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4위를 차지한 바 있어 시장규모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파이프라인

물질명	적응증	단계	설명
케이캡	위식도역류질환	허가	4분기 미국 FDA 허가 신청
IN-B00009	비만	임상 3상	GLP-1 수용체 작용제
IN-115314	아토피 피부염	임상 2상	JAK-1 억제 계열
IN-207039	비소세포폐암	비임상	EGFR 단백질 분해제

자료: HK이노엔, ARIS